



9일 안동 그랜드호텔 그랑포레홀 2층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도의회 의장이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퍼포먼스) 출범식 단초를 누르고 있다.

TK 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정부·정치권 지역 요구 전달 창구 기능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 조성 탄력받는다
 공항경제권 성공적 건설에 도민 역량 결집
 9일 안동 그랜드호텔, 경제·기업인 150여 명

정부 신공항 특별법 제정 후 경북도 비전 공유와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 건설을 위한 'TK 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경북도민의 역량 결집에 나섰다.

경북도는 9일 안동 그랜드호텔 그랑포레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시군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경제권 성공적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시군 대표 경제단체장, 기업인, 주민대표 등 60여 명으로 공동위원장에는 문충도 경상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이철재 경

상북도 이통장협의회장이 맡았다.

이들 위원회는 도민의 의견 청취와 소통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공항을 활용한 시군별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정치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기능을 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상황과 공항신도시 조

성계획, 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이 발표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북도는 이미 6천164세대, 1만5천410명 규모의 주거단지과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 산업클러스터 등 4개 권역의 공항신도시 개발계획과 항공물류육성 기본계획을 마쳤다.

○2면 장지수 기자

영천시, 올해 제1회 추경 1조3990억 편성... 당초 본예산 대비 1756억 증액

市, 민생경제 안정화, 주요사업·시민생활에 우선 예산 배정

영천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399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1회 추경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당초예산(1조2234억 원)보다 1756억 원(14.4%)이 증액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327억 원 증액한 1

조 295억 원, 특별회계는 180억 원 증액한 1096억 원, 기금은 249억 원 증액한 2599억 원이다.

영천시는 "민생경제 안정화와 핵심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면서 "역점시책 중점투자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민생경제 안정, 시민생활 편

의 인프라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 역점 시책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54억 원, △신성일기념관 건립 23억 원, △완산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20억 원, △영천사랑상품권 지원 39억 원, △대중교통비 지원 19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제5 사업장 건립

18억 원, △운수업 재정지원 13억 원, 경북도교육청 영천도서관 건립 25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 5억 원, 마현산근린공원 조성사업 60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0일 열리는 제2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승진 [인사]

- <5급>
- ▶청렴감사실 감사담당 방기경 ▶문화예술과 문화정책담당 윤미선 ▶종합민원과 개발허가담당 김영태 ▶기업유치과 투자유치담당 정영섭 ▶농촌지도과 지도경영담당 권호득
- <7급>
- ▶보건위생과 박서영
- <8급>
- ▶화남면 윤대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해외 파병 용사의 날 위로연

▶ 일시 : 2023년 5월 28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영천 마현산공원(영천시 교동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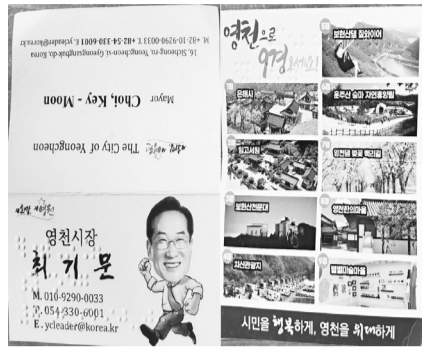
- | | | | |
|-------|-----|-----|-----|
| 지 회 장 | 박석만 | 위 원 | 최상빈 |
| 유족회장 | 윤순자 | " | 박성수 |
| 사무국장 | 정연팔 | " | 한용열 |
| 고 문 | 김기용 | " | 유의봉 |
| " | 이인호 | " | 지규명 |
| 대 의 원 | 황종태 | " | 조도현 |
| 기동단장 | 강경순 | " | 서대운 |
| 위 원 | 박병환 | " | 김백순 |
| " | 이규용 | " | 은중수 |
| " | 이영준 | " | 정병철 |
| " | 이태용 | " | 한두태 |
| " | 박상섭 | " | 최경술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 영천시지회

T. 054)336-4205 / F. 054)338-4205
 사무국장 010-9797-8136(연락처)

최기문 영천시장, 축사 허가 앞둔 축산업자(B 씨)로부터 식사 접대 사전 선거운동 논란

돈사 폐업자금(10억3000만 원) 받은 후 우사 전환 B 씨, 최기문 시장 가족 등 6명 식사비 대납(접대) 영천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부당성 논란은 남아 최 시장 배우자 (여) 공무원 계속 수행은 '묵묵부답' B 씨, 축사 인허가 전격 취소, 5년 가축사육 안 해



아냐!

최기문 배우자는 최 시장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날(1일) 최 시장의 홍보 명함을 전달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최기문) 안 찍어 주셨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음 선거에는 우리(최기문)를 꼭 찍어 주시겠죠?"라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선관위는 "후보자와 배우자 등은 전화 또는 말(언어)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영천시 해명

영천시 관계자는 이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날 최 시장은 해당 식당에서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자리였다"라면서 "축사 허가와 관련한 접대를 받을 시장님이 절대 아니므로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일(1일) 식사 후 차 안에서 B 씨가 최 시장

일행의 식대를 대신 결제했다는 비서의 보고를 받았으나 다음 날 시장님 업무추진비 카드로 다시 결제했지만 "업무추진비 카드 사적 사용 논란이 발생한 만큼 (행정)이 선제적으로 잘못된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업무추진비 결제 전면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한 고위 공직자는 "언론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냐? 그동안 최 시장의 배우자를 수행했던 여성 공무원이 대부분 승진했던 관례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배우자 여성 공무원 수행 행태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 최 시장 배우자 수행 여성 공무원 해명

최 시장 배우자를 수행했던 해당 여성 공무원과 부서장은 8일 본지에 "지역 16개 여성단체 공식 행사에는 관례로 수행했다"면서도 여성 공무원 최 시장 배우자 수행에 대한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주민들 해석

이와 관련해 계지리 한 주민은 "최 시장이 동석한 가운데서 B 씨가 대신 식사비를 내겠다고 최 시장이 있는 가운데서 결제했고, 사모님이 직접 다음 선거 지지까지 부탁했

다"라면서 "사후 비서의 보고를 받았다"는 "영천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도둑이 물건을 훔쳐 발각되자 제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다고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최 시장의 업무추진비 카드결제 취소에 대해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해명이다"고 일축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이장 L 씨도 앞서 지난 2월 중순 B 씨 축사 신축에 반대하고, 직접 주민들을 소집해 반대 서명을 받아 지금까지 행정에 제출하지 않아 주민을 기만했다"면서 "축사 반대 현수막을 걸지 말아달라"는 이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축사(豚) 폐업 보상받고 신규 축사(牛) 웬 말이나?, 마을 한복판 축사 신축·증축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다 걸어서 주민 간 갈등도 증폭하고 있다.

◆축산업자 B 씨 10일 전격 허가신청 취소

이런 논란이 일자 해당 축산업자 B 씨는 지난 8일 "(6일과 7일) 주민들과의 논의에서 해당 축사(牛) 신축과 증축은 취소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5년간 동일 축사(폐업한 돈사)에서는 일체 가축사육은 하지 않기로 주 합의했다"라고 밝히며 실제 10일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공직기강 해이도 넘어

직원 간 칼부림, 주먹다짐, 성희롱 등 만연 영천시, 공무원 사건·사고 숨기기 급급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특단 대책 필요 (6급) 면직원, 여성단체에 성희롱 발언 시내권 동장, 근무시간 음주 행정 논란

경북 영천시의 공직기강 해이도가 도를 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직원간 칼부림, 주먹다짐, 성희롱 발언, 음주 행정 등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영천시는 오히려 내부 공무원 사건·사고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오히려 공직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지난달 24일 영천시와 일부 공무원 등에 따르면 앞선 16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여

성 공무원 간 난동(싸움)에 과도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당시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당일 영대 병원에 치료를 받은 후 신경과 등에서 진료를 받고, 다시 영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지난 3월에는 영천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화북면 한 관광 체험시설에서 일하는 기간제 직원 남성 2명이 주먹다짐을 벌여 경찰 쌍방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직원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앞서 면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계장급(6급) 공무원은 면 여성단체 모임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 여직원 등에게 부적절한 전화

를 걸었다는 제보가 본지에도 제보됐다. 확인 결과 현재 해당 공무원은 부임 3개월여 만에 또 다른 면으로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6급 공무원은 다른 면에서도 민원인과의 마찰, 앞선 면에서의 외상 술값 시비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지 면 관계자는 "외상 술값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내권 동지역 한 사무관도 근무 중에 음주 행정으로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이 사무관의 음주 행정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런데도 영천시가 알고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이 공무원은 "영천시가 쉬쉬해 오히려 공직기강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본지에 반문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5급 공무원 A씨, 250억 원대 박물관 설계평가 심사위원 명단 유출

市 감사 착수 후 정황 포착 경찰 수사 의뢰 영천시, A씨 지난달 대기 조치

경북 영천시 사무관(5급) A 씨가 市가 추진 중인 250억 원대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 설계 예비평가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달 28일 영천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이같은 심사위원 명단 특정 업체 유출 의혹이 지난달 24일 市 감사부서에 팩스로 접수돼 확인한 결과 일부 정황이 확인돼 수사 의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립박물관은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기본 및 실

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영천시 화북동 일원에 부지 2만2442㎡, 전체면적 4800㎡,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로 상설·기획전시실, 수장고, 체험학습실 등을 조성한다.

해당 부서장인 A 씨는 업체들이 낸 박물관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를 위한 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해 최종 7명의 본 평가 심사위원을 선출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7명의 본 평가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전 예비평가 심사위원 21명의 명단이 특정 업체에 누출됐다는 것.

이에 따라 영천시는 지난 달 27일 담당 부서장인 A 씨를 대기발령하고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지수 기자

TK 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1면에 이어

그중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등 항공물류 기반 구축은 공항을 통한 새로운 경북도 건설 구상의 핵심이다.

경북도가 중심에서 항공물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기업들이 신

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의성 항공물류단지에는 통합물류센터,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신선식품 저온유통 물류센터 등을 조성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

정해 화물창출형 첨단제조기업,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한다.

▲북부권에는 안동 바이오 일반산단과 신규 지정된 바이오 생명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저온유통물류센터를 건설해 백신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서부권에는 경박단소형 IT 첨단제품 전용 공동물류센터와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위한 상용 화주 터

미널을 건설해 더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한다.

▲남부권에는 자동차부품 수출입 통합물류센터를 건설해 인근 자동차 완성차 생산 공장의 부품 공급기지로서 입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전기차와 도심 항공교통(UAM)으로 확장, 전환을 유도해 이동성 산업 환경의 대변혁에도 선

제적으로 대응해 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군과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협력해 중남부 권의 항공물류 허브, 대구·경북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육군3사관학교, 시설 개방 '한마당 잔치'

영천시민·동문·학부모 초청
시설 개방 한마당 잔치
고공 강하, 헬기 축하비행,
볼거리, 먹거리로 7000명 초청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학교장 배현국, 소장)가 지난 달 28일 시민과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학교 개방행사 하나로 영천시민, 동문, 학부모 등 약 7,000여 명을 초청해 민·관·군 '화합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학교 측의 주요 행사 프로그램은 ◆특전사 고공 강하, ◆육군항공(헬기) 축하비행, ◆군악대 거리공연 및 의장대 시범, ◆군 장비 및 물자전시, ◆체험부스(승마, 드론, 골프, 국궁 등), ◆생도 사진·서예작품 전시회, ◆생도 그룹사운드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행사들로 꾸며졌다.

또 영천시에서는 수지침 체험과 보드게임 부스, 지역특산품(포도주 등) 판매 및 관광 홍보 안내 부스, 영천 청년 고리 프로젝트 부스 등을 선보여 학교 개방행사에 보조를 맞췄다. 특히 행사장 인근에는 푸드트럭 22대가

설치돼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도 더해졌다.

3사관학교는 개교 46년으로 지난 2014년 9월 처음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정문에서 서문 사이의 담장 후면 공원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면서 점차 연병장과 학교

내 공원 시설도 일부 개방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창설 54주년을 맞아해 사관생도를 비롯한 생도 가족과 친지, 출신 동문 등 약 1300여 명을 초청해 학교 개방 행사에 이어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장지수 기자

與 행안위 "선관위, 北 해킹 공격 국정원 보안 점검 권고 거부 용납 못 해"

▲與="北 선관위 해킹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
▲선관위="해킹 사실 국정원에서 통보받은 사실 없다."

(與)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중앙선관위(선관위)가 北의 (한국) 선관위 해킹 공격 시도와 관련해 첨예하게 충돌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이 드러났는데도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반면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해킹(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조차 통보받은 바 없으며, 국정원 보안 점검 권고를 받아들이면 (선관위) 정치 중립성 훼손이 야기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3일 국민의힘 행정안전부 위원들에 따르면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해 선관위의 비정상적 행태를 더 지켜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행안위 소속 김기현·김용관·김웅·박성민·이만희·전봉민·정우택·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여된 이유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 기관의 조직이기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들 의원은 또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핑계 삼아, 북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선관위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그 경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임위 차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4일 국회의 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주관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본지 DB자료)>

에서 반드시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북한 해킹 공격 시도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선관위 입회 하의 보안 점검까지 거부한 선관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실무근이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적이 없고,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정

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자체 점검 외 외부 전문가 자문 평가를 받는 등 시스템 신뢰성 제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커 추적 과정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중앙선관위에 수신·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이를 선관위에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당 대표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아서 국정원에서 보안 컨설팅을 하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거부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해킹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전국영천시향우연합회

2023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향우회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갖고자
아래와 같이 초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일시 2023년 5월 20일(토) 오전 11시

장소 영천 스타 컨벤션(영천시 금완로51)

문의 사무총장 김진홍 H.010-3589-1742

이임회장 정병호 올림

취임회장 천정로 올림



전국영천시향우연합회

지진 최다 발생 경북... 최근 5년(진도 2.0 이상) 78.3% 감소세

최근 10년 전국 924건, 경북 388건

지난달 25일 경북 문경시 북서쪽 10km(진앙 깊이 12km) 지점에서 규모 2.7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경북 지진 발생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과 경남, 전남, 전북, 충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경북 영천 청도)의

원이 소방청과 행안부로부터 넘겨받은 최근 10년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리히터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 건수는 총 924건으로 이 중 내륙 발생이 총 524건으로 전체의 56.7%로 나타났으며, 경북지역이 3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에서의 발생 건수도 155건으로 확인됐다.

장지수 기자

경북도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3개 시·군별 행사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안동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로 1981년 UN의 '세계 장애인의 해' 선언에 따라 각국에 기념사업 추진을 권장해 왔고,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로 운영되다가 1991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슬로건으로 초대가수 공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

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도 23개 시군에서도 걷기대회, 재활증진대회, 어울림한마당, 위문품 전달,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사를 개최한다.

영천은 지난달 27일 영천강변공원에서 기념식 및 공식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안동시장, 도의원,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장애인과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지난 3월 프랑스 메스



(Metz)에서 개최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경북지역 선수 3명*이 참석해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경험담을 발표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다.

* 입상의 영예를 안은 선수는 김지옥(워드프로세서 부문 금메

달), 전동규(웹마스터 부문 금메달), 박영진(캐릭터디자인 동메달) 씨이다.

김효정 기자

청도군, 산림자원 활용해 치매예방 프로그램 진행

치매환자, 가족 숲속 나들이 산림치유, 돌봄능력 향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9일, 치매환자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청도숲속 놀이터 협동조합과 연계해 산림치유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다 함께 운문사, 신지생태공원 등 야외 숲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운문사 참꽃길 산

책으로 생화 왕관과 꽃 램프 만들기 하고 5월은 신지 생태공원에서 동창천 생태탐방중 편백배개 만들기도 진행됐다.

군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치매 예방 및 증상 개선을 도모하고, 치매환자와 보호자 간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한우 기자

경북, 코리아세븐일레븐 MOU 체결

껍과일 전국 1만4천 편의점 명절선물세트 등 품목 확대

경북도는 경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직거래 유통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도청 회의실에서 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경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배용규 동안동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및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의 다양한 과일을 세븐일레븐 1만4천여개 점포를 통해 소포장 껍과일 형태로 판매하고,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1차 가공한 껍과일을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공급하고, 코리아세븐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마케팅을 실시한다.

앞서 4월 초부터 3주간 시범 판매한 껍과일 5종 제품을 통해 1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사진=경북도제공> 최경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왼쪽),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서명후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다.

이는 기업의 유통망과 고품질의 신선 농산물을 산지에서 1차 가공해 납품하는 형태의 B2B 직거래 유통의 좋은 협업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도와 코리아세븐은 기존 사과, 방울토마토, 포도 등 5종으로 구성된 껍과일 제품에서 자두, 수박, 복숭아 등 제철과일뿐만 아니라, 명절선물세트 등 공급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포장재 디자인으로 개발 적용해 큰 호응을 기대한다.

김효정 기자

경북도, 지방세 5조원 시대... 지방세정 대상 포항시

종합평가 최우수 구미·칠곡 등

경북도는 지난달 21일 도청 K-창에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시·군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등 4개 분야 24개 세부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결과 △대상 포항 △최우수상 구미, 칠곡 △우수상 경산, 성주 △장려상 상주, 청송 △특별상 경주, 의성, 영양, 고령을 각각 선정하고 기관표창과 함께 상금 4천8백 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을 차지한 포항은 전년도 체

납액 징수율, 체납처분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칠곡은 현년도 체납액 정리 보류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구미는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및 세수확충 실적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5조4천억

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한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올해 경제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이 많지만, 경북도와 시군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살피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자"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5조4천67억원을 징수해 처음으로 지방세 5조원 시대를 열었다. 김효정 기자

구분	지역명	시상금
대상	포항	1000만원
최우수	구미, 칠곡	각700만원
우수상	경산, 성주	각500만원
장려상	상주, 청송	각300만원
특별상	경주, 의성, 영양, 고령	각200만원

도립예술단 건립 설계공모 作...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선정

5월 중 당선작 용역계약 체결 내년 4월 설계 마무리 6월 착공, 2026년 완공

경북도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진



행한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이전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지난1일 밝혔다.

현재 국악단은 고령 대가야국악당, 교향악단과 무용단은 대구 칠곡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같은 예술단의 연습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도청 신도시 제2행정타운으로 이전 건립할 예정이다.

설계공모에는 총 115팀이 참가

등록해 20팀이 공모안을 제출했고, 기술심사(4.18.)에 이어 본심사(4.25.)를 거쳐 2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최종 당선업체는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로 선정됐으며, 입상으로는 2위 「(주)제이유건축사사무소/에스큐빅 디자인 램(공동)」, 3위 「건축사사무소bjdn」, 4위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5위 「(주)건축사사무소 스튜디오무트」가 각각 선정됐다. 김효정 기자

포항,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생산

매출액 70조 달성 전망

포항시가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한발 앞서 행정력을 집중해 온 이차전지 산업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이차전지 소재 분야 세계적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배터리의 심장'으로 불리며 출력, 용량 등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 100만 톤 생산으로 양극재 매출액만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포항에는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부응해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에코

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이차전지 소재 핵심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포항시·경상북도는 중국 절강화유코발트·포스코퓨처엠과 총 1조 7000억 원대의 투자협약을 포항시청에서 체결했다. 니켈 정제 및 전구체 생산에 1조 2000억 원, 음극재 생산에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은 중국 절강화유코발트 뿐만 아니라 세계 전구체 생산 1위 기업인 중국 CNGR의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CNGR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과 함께 합작 투자사 설립으로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영일만 4산업단지 내 전구체 10만 톤, 니켈 정제 25만 톤 생산을 위한 공장 착공을 준비 중이다. 박한우 기자

경북도 첫 지방 정원 '경북 천년 숲 정원'... 관광수요 창출

<경주 남산>

도 정원사업 거점·도민 힐링 공간 자리매김

경주시 남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상북도 제1호 지방 정원이 지난 달 24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 오픈됐다.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원장 엄태인)은 이날 오후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임상섭 산림청 차장, 산림 관련 관계 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다 꽃이야'라는 주제로 개원에 다음 날 25일까지 축제 행사를 이어갔다. 경주시 통일로 366-4 삼산 일

원에 자리 잡은 '경북천년숲정원'은 연구원 내 부지 33ha에 사업비 137억 원(국비 29, 도비 108)을 들여 2016년 첫 삽 후 이날 개원식까지는 만 7년이다.

숲 내에는 숲 해설, 유아 숲, 정원 실습장, 천연기념물 특화 숲, 배롱 숲 등 13개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시민정원사, 작가정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방 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10ha 이상 면적에 녹지가 40%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경북에는



구미, 상주, 청송, 울진 네 곳에 지방 정원이 있다. 이번 경상북도 제1호 지방 정원을 포함해 모두 5곳

으로 늘었다. 연구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관람할 수 있다고 밝

혔다.

엄태인 경북도 산림연구원장은 정원 산업은 일자리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앞으로 경북천년숲정원이 경북도 정원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개원식에서 경북 첫 지방 정원 준공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 등에 대한 시상식 후 개원식 축하 컷팅, 아이들과 축하 퍼포먼스, 기념촬영 등을 소화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제61회 경북 도민체전 최근 10년 역대 최하위... 8개 종목 미 참가 원인

공도, 역대 최고 성적 단체 1위, 개인 2위 시부 1위 포항시, 구미시 2위, 경산시 3위

지난달 21일부터 나흘간 경북 울진에서 열린 제61회 경북 도민체전에서 영천시체육회(회장 박봉규)는 경북도 10개 시부 중 최하위 종합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제52회 대회와 2017년 영천에서 열린 제55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5위를 기록한 후 줄곧 7~8위에 머물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이번 대회에서 영천시는 공도 종목이 단체전 1위와 개인전 2위로 종합 2위를 기록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실업팀인 태권도는 지난해와 같은 종합 2위를 유지했으며, 레슬링(4위)과 유도(5위), 탁구(5위), 육상(6위), 축구(7위), 배드민턴(8위) 등 6개 종목은 지난해보다 각 1~2등급씩 올랐다. 하지만 배구(5위), 복싱(7위), 검도(8위), 골프(8위), 수영(8위), 우수(8위), 보디빌딩(10위) 등 나머지 10개 종목은 대부분



지난달 21일 울진에서 개최된 제61회 경북도민체전 개막식(오른쪽부터 박봉규 영천시체육회장, 윤승호 경북도의원,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최기문 영천시장, 이춘우 도의원)

2등급씩 하락 또는 8~10위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기록이다. 영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

회는 타 시와 비교하면 8개 종목에 선수를 출전시키지 못해 참가 점수를 인정받지 못한 데다 각 종목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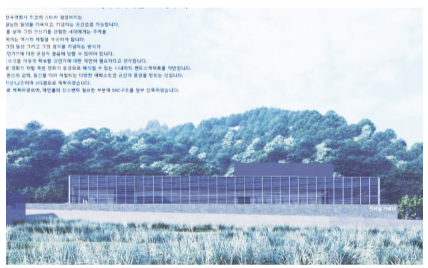
체 활성화 부족과 미온적 선수 육성이 성적 저하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대회 시부 미참가 종목을 분석한 결과 2위 구미시가 공도 1종목을 참가시키지 못했고, 영주시가 레슬링과 역도 2종목, 문경시가 2종목, 상주시가 4개 종목에 불참했고 영천시는 농구, 핸드볼, 역도, 사격 등 8개 종목에 미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제62회 경북 도민체전은 구미시에서 개최된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영화배우 (故) 신성일 기념관 건립 심의위원회... 10월 착공, 내년 연말 준공

사업비 100억 원, 지상 2층 규모 추모 기념관



한국영화계 전설로 불리는 (故) 강신성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달 24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보고회 자리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우애자 의회 부의장, 박주학·이영기·이영우·김용문 의원과 해당 부서장 및 영천시 공공건축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영천시 중간보고회는 앞선 착수보고회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자리다. 시는 5월 중 기본도면이 확정되면 본 용역을 발주한 후 경북도 원가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최종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건축 공사를 시작해 내

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故 강신성일 씨는 2008년 이곳 영천시 남부 괴연동 630번지에 한옥을 지어 입주하면서 '성일가'라 부르고, 10여 년 노년을 이곳에서 보내다 지난 2018년 11월 4일 향년 81세의 나이로 자신의 한옥 옆 잔디밭에 잠들었다.

앞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당시 (故) 강신성일 씨 추도식장에서 "유족들이 동의하고 영화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평소 고인의 뜻을 받들어 고인을 추모하는 기념관을 대한민

국 최고 시설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영천시는 지난 2020년 9월 고인의 유족들이 성일 가 건물과 토지 전체를 영천시에 기부한 후 85억원(도비 46억 원 포함)을 투입해 성일가 주변 62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신성일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일부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사정과 또 용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규모가 변경됐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부지보상 20억 원, 공사비 80억 원)으로 당초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가 지상

2층 규모로 축소하고, 면적도 당초 1615㎡에서 1372㎡→1747㎡→최종 1400㎡~1500㎡ 규모로 줄어들 예정이다.

영천시는 이 사업을 '故 신성일을 만나고 기억하는 자리-신성일기념관'을 비전으로, △신성일 기념공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지역예술가 교류공간, △관광사업 시너지 효과 4개 목표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기념관에는 수장고, 영화감상관, 영화제작관, 카페테리아 및 아트숍, 사무실과 회의실,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VR 체험관, 세미나실 등이 설치되며 주차시설은 대형 주차를 제외한 약 50면이 설치된다. 김효정 기자

구미, 「초순수 실증 플랜트」 100% 국산화 성공...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청신호

尹 대통령, 구미 SK실트론 방문

초순수는 불순물이 0%에 가까운



물을 뜻한다. 반도체 웨이퍼를 씻을 때 사용되는데 물에 불순물이 있으면 수율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는 필수 소재다.

구미 SK실트론 '초순수 실증 플랜트'에서 연말 설계시공 국산화 100% 완성 전망에 따라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공업용 초순

수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국산화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겠다"면서 지난달 24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내 초순수 시설은 일본 초순수 기업들이 설계하고, 장치는 일본이나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은 일본 기업에 맡기고 있다.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는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2021년 6월

환경부 과제 초순수 국산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월 초 윤석열 대통령 또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북 구미 SK실트론 공장 내 '초순수 실증 플랜트'를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현재 하루 1200t 초순수 공급에 성공, 성능검증 통과함에 따라 국산화 초순수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구미가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다면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등 경쟁국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초순수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국산화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경북 구미 SK실트론 공장 내 '초순수 실증 플랜트'를 시찰하고 '공업용 초순수 실증 플랜트' 국산화에 힘을 실었다. 박한우 기자

영천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주기적 규제개혁 자체 안전 발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영천시는 지난 2일 김천 로제니아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6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높이 평가 받은 규제개혁 추진 실적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적극 개정, 주기적인



규제개혁 자체 안전 발굴 및 道 주여, 부시장 주재의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 등이다. 김효정 기자

상·하수도 요금 6월까지 체납 일제정리

영천시는 지난 2일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해 8일부터 6월 말까지를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했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상수도 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징수활동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되고 수도물 사용에 대한 납부 의식 개선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단수

조치는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왔으나 3회 이상 체납자에게는 체납고지서를 일괄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 납부자에 대해 정수예고 및 조치를 취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지만 수용가의 납부 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어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인구정책 가이드북 배포... 혜택 한 눈에

'슬기로운 영천생활 안내서' 총 3500부 제작·배포



영천시는 인구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의 생애(生涯) 주기별 및 분야별 사업 안내서로 '슬기로운 영천생활 안내서'를 총 3500부 제작·배포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전입지원, 결혼·임신·출산·다자녀, 양육·교육, 기업·청년·일자리, 노인복지·보훈, 귀농·귀촌, 어디갈까(영천 관광안내도, 영천 9경), 알쓸신잡(학교시설, 문화·교육시설, 병·의원시설, 임산부·군 장병 우대 할인업소 등 현

황)의 8가지 분야로 제작됐다.

발간된 내용은 생애 주기별 지원사업 소개는 물론, 각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이다.

배포된 가이드북은 시민이 주로 방문하는 시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전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 관광지 등에 비치된다.

또 영천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인구누리기 → 인구정책 가이드북)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효정 기자

영천 원제터널 내 화물 열차 궤도 이탈

일부 대구선 운행 중단, 인명피해 없어

경북 영천시 북영천역 인근 원제터널 입구에서 10일 오전 11시 35분경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궤도 이탈차량은 제천(충북)에서 구미(신동)로 향하던 중앙선 화물열차로 19량 가운데 1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영천에서 동대구까지 대구선 일부 무궁화호와 누리호 등 5개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고,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서 동대구-울산-부전역 열차 운행 중단 시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 측은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구 후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에는 오후 3시 현재 화물칸(15개) 견인을 위해 사고 차량 바퀴 및 철로를 보수 중이며 이날 사고와 관련해 오후 3시경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단 5명이 현장에 도착해 사고원인을 분석 하고있다.

한편,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구간 열차 이용 고객께서는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장지수 기자

영천-인천국제공항 5월부터 운행 재개... 예매 필수



영천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시간 및 이동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직행

버스가 운행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행 개시해 호응을 받다 코로나19로 3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에 시민들은 대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버스 이용은 언하공단사거리 동영천 IC방면에 설치된 공항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여 승·하차할 수 있다.

버스는 1일 2회 왕복 운행으로 2터미널 기준 4시간 15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영천 출발(상행)시간은 00:15, 07:35이며, 인천국제공항 출발(하행)은 07:00, 15:00로 각각 운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탑승일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인터넷 예매(www.bustago.or.kr)를 하고, 버스 도착 전에 승강장에 대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



임고면 삼매3리, 영천 행복마을 스타 빌리지 30호 탄생

주민 맞춤형 리모델링,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영천의 마을 낡은 시설을 해결하고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속적인 재능기부 활동 프로그램인 영천 행복마을 만들기 '스타 빌리지' 사업 30호가 태어났다.

(사) 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구홍우)는 9일 임고면 삼매3리에서 자원봉사단체와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 행복마을 스타 빌리지' 30호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타 빌리지 사업은 2014년 제1호 사업(고경면 부리마을)을 시작해 올해 9년째로 올해 첫 사업인 29호(청통면 신학1리)에 이어 이번 임고면 삼매3리는 30번째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사전에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고 방충망 교체, 전등 교환, 칼 같이, 돋보기 지원, 우체통 교체, 이·미용 서비스, 장수 사진 촬영 등 11개의 분야 재능 자원봉사자들이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에는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 세탁 서비스가 추가돼 어르신들이 다루기 불편한 무거운 이불 등이 인기를 끌었다.

구홍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영천 행복마을 스타 빌리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천시는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응원 대회 및 토론회를 위해 지난 2일 서울 글래드호텔에 참석했다.

이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추진하는 행사로 8개 기관(대구시, 환경부, 대구시 동구, 경상북도,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국립공원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팔공산에 대한 국립공원 승격과 승격 이후 체계적인 공원관리 업무 수행, 지속가능한 탐방 서비스 제공하는 공원사업, 지속이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 등이다.

설동수 부시장은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질 높은 편의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가

능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의회, 제9대 첫 의원역량 강화 실무 국내 연수... 2박 3일 제주도

의정교육과 선진시설 견학 통한 시 발전 방향 모색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의정 실무를 제주 일원에서 가졌다. 이번 연수는 의원과 직원 등 17명이 참석해 직무교육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정 질문 기법 및 비결과 예·결산 심사 및 실무과정 교육 등 향후 의정활동에 대비 하려는 의원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현재 2025년 개장을 앞둔 영천

경마공원 건설과 말산업 특구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마사회의 렛츠런파크 제주와 렛츠런 팜을 방문해 제주 승마 산업에 대해 듣고 경마 관련 시설과 목장시설 등을 견학했다. 특히 의원들은 또 제주 동문재래시장을 방문해 영천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 대응농업 연구소를 방문하여 홍보전시관과



2023년도 영천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의정연수. 아열대 과수 재배 온실, 국내 유일 아스파라거스 재배 시험 온실 등을 둘러보고 우리시 농작물 재배환경 변화에 대한 방안을 연구 토론하고 돌아왔다.

이번 연수 일정을 마치면서 의원들은 "2박 3일 동안 교육 연찬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시 각 분야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연수를 통해 습득한 정보·지식은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9대 영천시의회 첫 의원역량 강화 국내 제주 2박 3일 연수에는 이영우·배수에 두 의원은 불참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10일~19일, 10일간)

예산심사... 효율성, 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중점
영천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 1조3990억 원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사진) 제230회 임시회가 10일~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개회됐다. 영천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요 사안이다.

앞서 영천시는 1조399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3일 영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1차 정례회 때 실시한 행

정사무감사는 시기가 촉박하여 올해는 2차 정례회(연말)로 변경했다. 또 행정문화복지위원회(김상호·우애자·이영기 의원) 3명과 산업건설위원회(이갑균·김용문·김종욱 의원) 3명 등 6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김용문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영기 의원과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이영우·김용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11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 활동으로 집행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시정 질문을 마치고 폐회한다. 이날 하기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안전을 고려해 시급한 예산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특히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김상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영천 균형발전 일환, 대창면 도잠서원 정비 촉구

연계서원 옆 유림 인성교육관 제 역할 발휘 못 해
공직자 시립박물관 부정(사건), 워선 지시 없나?

영천시 대창면 영지길 399 (옹호리) 조선 중기 학자 지산 조호익(曹好益:1545~1609) 선생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도잠서원'을 영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영천 지역 문화 전국 네트워크를 조성해 문화 관광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발언했다. 또 김 의원은 향후 도잠서원에서 지역대학생, 인근 공단지역 근로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후 환경 생태체험 인문학 교육 등 다른 교육기

영천시의회 김상호 의원(사진)은 10일 제2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 북부권보다 도잠서원이 있는 남부권 발전이 더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잠서원은 임금이 직접 친필 현판을 하사한 사액서원(賜額書院)이다. 1612년(광해군 4) 모사리에 창건하였으며, 창건 당시 지봉서원으로 불렸다. 1678년(숙종 4)에 지금의 옹호리로 옮겨 세워 이때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다. 이후 도잠서원은 1985년 8월 5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두산백과)

김 의원은 이런 서원이 "지금은 잊혀 가고 있다"면서 "영천의 문향을 널리 홍보하는 문화재로서 역할에도 손색이 없다"고 밝히고 도잠서원이 동부권 임고서원과 북부권 인성교육관 투자보다 저평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2019년 34억 원의 규모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도잠서원 및 도화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무릉도원으로 알려진 전국 최대 복숭아 단지 대창의 사진 촬영대회와 인근 최부선 과학관, 만취당, 유후재, 병애정사 등과 연계하여 곧 개통될 대창 하이패스

관과 차별되는 시대가 요구하는 특성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과 영천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한다면 영천은 최고의 도시로 거듭 발전하리라 확신한다."면서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현재 신녕면 연계서원 옆 '인성교육관'은 위치와 접근성 환경이 좋지 않은데 도잠서원 옆 청소년 수련 시설이 들어서실는 실제 사업 진행의 형태도 이와 유사하다"면서 해당 수련관이 인성교육관과 같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낼 것을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 정비 일환 도화원 주변 데크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데크 시설은 한 두 해 정도 깨끗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결국 새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견고 싶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구간이 아니라면 데크 화를 최소화하고 흙길 그대로 조성하자는 주장이다.

이갑균 의원 [5분 자유발언]

영천시 지하수(관정) 관리 대책 마련 시급

지하수 관리 인력 충원, 이용부담금 부과
영천시 현재 지하수 관정 총 7천443개공

이갑균 의원(사진)이 "영천시가 안전재난하천과 직원 한 명에게 관 내 7천400여개공의 관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묵시적으로 방치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서는 첫째, 방치공 찾기 연중 캠페인을 추진해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으로 시민이 청정 지하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

이 의원은 10일 제2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영천시를 향해 "미래세대로부터 물 관리 능력 부족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 지하수(관정)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UN이 최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서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전망을 하는 가운데 이 의원은 이날 ▲청정 지하수 환경 조성, ▲근본적인 지하수 관리 대책 마련,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현재 영천시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농업용수 관정 5천 12개 공, 생활용수 2천151개 공, 공업용수 266개 공, 기타 14개 공으로 총 7천443개 공이다.

이는 2000년 이전 1천 700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까지 5천 700개 공이 설치되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매년 평균 400여 개가 증가한 것으로 신고·허가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과 폐공, 불용공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이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미래세대로부터 물 관리 능력 부족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

특히 이 의원은 "안전재난하천과 직원 한 명에게 7천400여 개 공의 관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방치를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직원 충원과 마을 이장,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불용 관정, 방치공 등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로 이 의원은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지하수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면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이 제도는 현재 전국 79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경상북도 내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일 양수 능력이 일정 규모 이상인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임종택의 『숲과 人間』 ⑩



임종택

죽어 있는 목재와 살아 있는 나무... 人間の 삶을 지배한다

나무는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모양을 바꾸거나 때로는 정체성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인 변신을 꾀한다. 근대에 와서 목재는 일반적으로 천연 목재 합성 목재 방부목으로 구분하는데 천연 목재의 경우 연목재인 침엽수류와 경목재인 활엽수류로 나뉜다. 흔히 우리는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더 단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활엽수인 참나무나 아까시나무 박달나무 등은 소나무보다 훨씬 단단하다.

◆대한민국, 산림정책이 가장 성공한 국가

우리나라는 6.25이후 민둥산이었던 국토에 전 국민이 나무심기 운동을 벌여 세계적으로 산림 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산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 목재로 활용하거나 재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과거처럼 산에 있는 소나무를 자유롭게 베어서 집을 짓거나 땀감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공공의 영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 또는 유통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 직업의 목수가 사라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석탄이 수입되기전 농산촌은 나무를 베어 팔던 당시 은행원의 수입보다 많았다. 어느 시점 은행원의 소득이 나무를 키워 팔던 임가 소득을 훨씬 앞지르게 됐다. 산촌 경제는 끝없이 추락의 길로 떨어졌다. 1차 산업인 목재 생산은 가공 단계인 2차 산업의 산물, 즉 합판이나 단기 임산물의 가공으로 발전하는데 소득은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다. 이유는 우리나라 나무는 열대 지방처럼 성장 속도도 빠르고 통직하고 곧은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못된다.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자라는 속도가 달라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무는 뒤틀리게 자라기도 한다. 여름에는 부피 생장이 크지만 겨울이면 성장

의 속도를 멈추거나 최대한 느리게 성장한다. 성장이 고르지 못하고 줄기의 형태도 곧지 못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

◆시장자본주의 희생양 되는 산촌 경제

이러한 어려움에 한 몫하는 것은 수입 목재의 증가와 소나무림이 많아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고 산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특성이 있다. 산촌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장기 임산물의 소득은 기대하기 힘들다. 땀감 등 단기 임산물의 판매가 주다. 시장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산촌 경제를 살릴 방법은 없을까.

산촌의 원래 뜻은 과거에는 화전민이 거주하는 마을로 나무, 장작, 숯을 생산하는 마을이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멀어 접근성이 불리한 산간 마을 또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불리 지역의 뜻이다. 행정적 정의는 산촌은 산림 면적이 70% 이상으로 높고 인구 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이며 행정 구역에 대한 경지 면적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수도권 이남의 경우 지방소멸 위험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약간의 농산물을 생산해 생활하는 농·산촌이 많다.

◆산촌경제 희망 있다... 마을 재생

‘숲에서 자본주의를 꺼안다’의 저자 모타니 고스케는 시장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산촌자본주의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시장의 경쟁적 자본주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자원의 소멸 없이 순환하는 산촌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산촌경제에 대한 희망은 분명 있다. ‘마을의 진화’ 저자 간다 세이지도 조립식 공법으로 짓는 목공 기술을 산촌의 한 마을에서는 목수가 직접 짜맞춘

공법을 활용하여 그곳의 나무와 규격으로 자신들만의 나무 집을 짓거나 수리한다. 농가나 임가를 떠나 목수들이 빈집을 직접 보수하여 ‘한 달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마을을 재생시키기도 한다.

◆영천목재문화체험장... 활용도 낮아

영천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큰 시설물이 보현산 자연휴양림 안에 있다. 이곳은 나무를 활용한 각종 체험 공간이다. 체험프로그램은 주로 중간 제작물을 구입하여 완성하고 조립하는 단계로 목공예 체험, 목재 문화 전시, 목공 수업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단순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크기와 규모의 경제논리로 본다면 활용도가 낮다. 목재를 활용한 체험 시설은 세계 각 나라별 목재 전시와 재질의 특성, 그리고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목공 기술 체험과 나무의 성장 과정, 벌목 등 나무의 일생을 통한 전 과정의 목재 교육이 필요하다. 즉 목재 관련 모든 지식과 기술의 총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목재문화체험관이 영천시 나무사관학교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면 영천시의 목재 관련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주변 환경을 이용한 숲해설과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까지도 아우르는 나무 교육의 메카로 발전 할 수 있다.

◆산림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지방소멸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특히 산림 분야의 혁신도 마찬가지다. 지역 모든 문제는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는다.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고 도시가 현대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행복하다고도 할 수 없다. 건물을 짓는게 혁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혁신이다.

나무의 화석연료, 인간 최대 욕망
영천목재문화체험장... 활용도 낮아
산촌 경제 희망 있다... 마을 재생

◆나무가 주는 화석연료는 인간 최대 욕망

나무와 목재, 차이는 무엇일까.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지만 나무는 살아 있으면서 줄기와 가지로 구성된 여러해살이 식물을 뜻하고, 목재는 죽은 나무로 건축 가구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쓰이는 나무로 된 재료를 의미한다. 나무의 어원은 땅위에서 출발한 줄기를 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무가 여러가지 쓰임새로 사용되면 목재가 된다.

나무는 인류사를 거슬러 올라가 한시도 인간의 곁에서 떨어져본 적이 없다. 나무는 인간의 삶 전체다. 지금도 나무는 형태만 다를 뿐 온통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오히려 인간의 탐욕으로 스스로 나무의 노예를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탄소 성분을 나무는 자신의 몸에 저장하고 있다가 죽으면 자연의 유기체로 퇴적된다. 탄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석유 같은 것도 결국 식물의 사체로부터 얻어지는 화석연료다. 화석연료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매개체로 작용한다.



목재 문화체험장 전경



목재 문화체험장 전경



영천목재문화체험장 내부 실습공간

청년일자리 창출,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주요사업

- 취업특강 및 컨설팅
- 구인·구직 만남의 날(Job Meeting Day)
- 취업캠프(대면, 언택트)
- 청년 구인 기업체 홍보 및 지원
- 회원사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 청년공감카페 운영
-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등

지원체계



기자수첩

장지수
기자



장세용이 쓰러뜨린 '왕산' 허위...

김장호가 바로 세웠다.

무지(無知)한 권력...

역사는 산 사람들이 왜곡한다.

역사 왜곡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거나 거짓으로 지어 쓰는 일을 일컫는다. 이런 역사 왜곡의 주체는 실로 다양하다.

개인이나 단체나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살아있는 권력이 그 주체가 된다. 그 권력이 정부일 경우 이념이나 사상까지도 서슴치 않는 게 일반적이다. 정통성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 심각하다. 정부 주도 역사 왜곡은 반대파에 대한 정치공세로 나타난다. 중앙 정부가 시작하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 역시 권력을 남용하기 일쑤다. 정통성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9월 장세용(더불어민주당) 당시 구미시장이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홍보영상에서 공단 역사를 왜곡했다.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시작점으로 구미공단의 창시자이자 전설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쏙 빼고 대신 공단과 관련이 없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만 끼워 넣어 홍보했다가 구미시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한마디로 아비 없는 자식을 낳은 공단역사 왜곡이다.

또 장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선 후 취임과 동시에 왕산 허위 선생의 누

각이 있는 '왕산 허위 광장'을 '산동 광장'으로 명칭을 바꿔 버렸다. '왕산루'도 '산동루'로 변경해 허위 선생의 흔적도 싹둑 지워버렸다.

'왕산광장'과 '왕산루' 명칭은 직전 남유진 구미시장이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세운 민족의 근대사적 역사다. 이를 장세용은 자신의 개인감정을 앞세워 치졸하게 뿌리 째 싹둑 지운 것이다.

더군다나 왕산 허위(許蔭, 1855~1908) 선생은 구미 임은동 출신으로 독립운동으로 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직한 1호 독립유공자다. 대한민국 건국훈장(1962) 추서 제1호다. 허위 선생 직계 아래로 15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으며, 우당 이회영, 석주 이상룡 선생과 함께 대한민국 독립운동 3대 명문가다.

특히 허위 선생의 후손 허영식 장군은 일본군에게 빼앗은 말과 무기로 기마부대로 만들었던, 이 육사의 때 「광야」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온 초인의 실존 인물이다. 그



는 1939년 당시 30세로 동북항일연군 총참모장 겸 제3로군 군장에 취임해 만주와 하얼빈 일대를 진동시킨 항일전쟁의 영웅이다.

허 장군은 1942년 8월 9일 33세에 흑룡강성 경안현 청봉령에서 일본군과 만주군 토벌대의 포위를 뚫다가 부대원을 대피시킨 후 혼자 교전 중 전사했다. 장군의 목은



효수돼 시내에 내걸리고 시신은 짐승 먹이로 버려져 마지막 남은 오른쪽 다리 하나만 수습됐다.

그는 단지 만주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고향에서도 잊혀진 사람이 됐고, 좌익 계열의 무장독립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

허위 선생은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의

병 활동을 전개하다 1908년 6월 11일 경기도 양평군 유동(柳洞)이란 산중 마을에서 일본군 헌병에게 붙잡혀 1908년 10월 21일 서대문 감옥에서 짧은 51세로 순국한 난세의 영웅이다.

1966년 11월 26일 정부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는 의미로 동대문에서 청량리까지의 도로를 허위 선생의 호를 따서 '왕산로'라 붙였다.

허위 선생이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한 후 임은동 허씨 일가는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떠났다.

박정희 흔적 지우기와 함께 역사 왜곡질을 무지(無知)한 지방 권력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전 구미시장이 세 치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이를 국민의힘 김장호 현 구미시장이 다시 바로 잡았다.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허가이 블라디미르 구코비치'와 증손자 '허가이 세르게이'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현지에서 살고 있었다. 구미 지역 보훈 단체가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살아온 과정과 고충을 묵묵히 들어주며 눈시울을 붉힌 것이다.

김 시장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지사 후손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항상 안타까웠다"며 "후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현장사업을 추진해 왕산 허위 선생의 독립 혼이 후대에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은 왕산 허위 선생의 동상 건립 취소와 함께 5년째 경기도와 대전의 한 컨테이너에 동상을 방치시켰다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러나 작금 민선 8기 국민의힘 김장호 구미시장이 왕산 허위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팔을 걷었다.

역사 왜곡과 역사 왜곡을 막는 것 모두 막강한 권력이 중심이다. 조작된 역사도 역사다.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산 사람들이 왜곡한다.

[어버이날 이모저모] “우리도 마을 회관 하나 지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금호 교대3리 340여 가구 임시 건물 어버이날 가장 큰 읍, 가장 큰 대로, 가장 낙후된 마을회관



<지난 8일 어버이날 영천시 금호읍 교대3리 구분주 이장(왼쪽)과 전영환 노인회장이 좁고 가건물인 마을회관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영천시 금호읍 교대3리(이장 구본준) 주민들이 이웃의 후원으로 마을 회관에 모여 조촐한 어버이날 행사를 했다.

이날 금호읍(읍장 최상국)은 어버이날을 맞아 전체 행사는 하지 않고 조용하게 각 단위 마을별로 치러졌다.

교대 3리는 교대리 274번지 좁은 골목을 끼고 회관 역시 주방과 좁은 방 두 개로 340호 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을은 3m 폭 좁은 골목 안에서 작은 천막 한 개 아래 플라스틱 테이블 3개를 붙여 20여 명의 주민이 띄엄띄엄 찾아오는 마을 어르신들을 맞았다.

어르신들은 이날 이웃 멕시코 영천지사에서 후원한 통닭 20마리(50만 원 상당), 푸른농원에서 협찬한 달걀 100판(10개/1판), 그리고 회원들이 준비한 기념 수건을 선물로 받고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고디탕(점심)으로 한 끼를 때우고 좁은 자리를 금방 빠져나갔다.

이날 전영환 마을 노인회장은 "아이고 기자 양반 영천에서 우리 마을에만 유일하게 회관이 없다고"라며 취재 나온 기자에게 자

리가 협소한 것에 겸연쩍어했다.

또 전 회장은 "그나마 좁은 방이 두 개지만 그것도 회관 전체 건물이 땅은 개인 소유로 임시 건물로 지어져 행정등록조차 하지 못해 영천시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어렵다"며 건물을 가리키며 애써 즐거운 어버이날이지만 즐거움을 잊었다.

교대3리에는 영천~하양 간 대로(국도 35호 대경로)가 가로질러 모임에도 장애를 받는다. 길 건너 빌라에만 240여 호가 거주하고 회관이 있는 쪽은 80여 호가 있다. 연 3만 원의 회비 납부도 일정하지가 못한 데다 좁기까지 해 마을 주민 화합에도 걸림돌이 된다.

이 때문에 영천에서 가장 큰 읍이면서 가장 큰 대로변이지만 가장 낙후한 회관을 갖고 있다. 이날 어버이날에도 겨우 80여 명의 주민과 어르신들이 겨우 회관을 다녀갔다.

올해 처음 이장을 맡은 구분주 이장과 전영환 노인회장은 이날 본지 기자에게 "주어진 여건에 맞춰 행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거창한 곳에 가장 비좁은 임시 건물에서 점심 한 그릇 주더라도 하지 마소"라며 함박 웃음을 지었다. 장지수 기자

어버이날 이색 탐방

영천시 대창면 병암마을 어르신들의 미술 작품 전시회

세 자매는 스승, 팔·구순 8명의 할머니가 제자 두 달 무료 미술 수업에 작품은 작가도 놀라 "아이고 부끄러워서 우짜노 기자 양반" 찰칵!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장 먼저 어린이 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성년의날까지 한 달 내내 빼곡한 일정이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날이 어버이날이 주목받는다. 우선 선출직들이 가장 발품을 많이 파는 날이기 때문이다.

영천에서도 지난 6일부터 16개 읍·면·동별 또는 각 마을 단위별 어버이날 행사가 줄을 잇고 8일을 정점으로 대부분 음식 대접이나 가벼운 선물 공세에 선출직들과 각 읍·면·동장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기만 했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8일 대창면 병암리 노인회관의 어버이날 행사장을 찾았다. 본지가 찾은 올해의 가장 이색 어버이날 행사로 꼽는다. 회관 입구에서는 어머니의 은혜 노래 가사가 잔잔하게 기자의 마음을 물들인다.

바로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세 자매의 '화가마실' 어르신들의 그림 전시회다.

박선화·박선영·박효정 30대 전후의 세 자매는 병암리에서 태어나 외할머니의 보살핌으로 자란 것이 인연이 되어 영천을

떠나 있어도 고향 어르신들을 잊지 못해 자신들의 재능봉사로 일흔에서 아흔에 이르는 마을 어르신들의 숨은 끼를 화폭에 되살렸다.

한 자매는 미술을 전공했고 한 자매는 유아교육학을 그리고 한 자매는 경찰 행정학을 전공해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세 자매 모두 아동 미술과 미술 심리학 등 미술을 담으로 익혔다. 그리고 재능은 고향마을 어머니들께 고스란히 전수됐다.

세 자매가 스승이고 8명의 마을 어르신들이 제자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두 달여 틈틈이 그림 그리기 지도로 이날 회관 전정에서 환희와 웃음꽃 피는 절정의 전시회를 열었다.

기념촬영을 하자는 기자에게 "아이고 부끄러워서 우짜노" 하시면서도 내심 자신의 그림 솜씨를 자랑하고 싶으신 91세 서점선(여) 어르신. 수채 물감으로 자연과 정물화를 화폭에 옮겼다. 채색과 구도가 예상치 않았고 사실감을 고스란히 드러낸 수준급 솜씨다. 할머니 스스로도 작품이 대견스럽게



<8일 어버이날, 영천시 대창면 병암마을(이장 김판술) 세 자매의 '화가마실' 어르신들 그림 전시회(왼 내가 박선화·박선영·박효정 세 자매 무료 그림 지도 봉사자)>

여겨진다.

희숙 어머니는 작은 화폭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다. 지금은 얼굴에 세상의 굵은 세월의 흔적이 박혀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내면과 보여주고 싶은 미적 아름다움을 작은 화폭에 담아 기자에게 잊힌 지난 동심을 살포시 드러냈다.

이날 어머니들과 함께 마을의 꾸밈없는 정서를 펼친 김판술 이장은 "이번 세 자매의 무료 미술 수업으로 그동안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우리 마을 할머니들이 세월

이 다하는 동안 각자가 물어놓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행복한 그림 잔치를 벌였다."며 세 자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른 이의 도움 없이 마을 이장과 함께 순수 자비로 작은 다과와 점심상을 차려 자신들이 자란 고향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세 자매. 이번 어버이날 경로효 잔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들 세 자매는 이같은 '예술 나눔 프로젝트'로 어르신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을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경북영광학교, 제25회 경상북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최고 성적 거둬

육상-금2·은3·동2, 탁구-은1·동1 획득

경북영광학교(교장 강진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울진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25회 경상북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육상 부문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3일 학교측과 영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경북영광학교 정재현(고3), 지윤재(전공1) 학생이 각각 육상200m와 포환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육상에서만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5회 경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울진

군과 울진군 체육회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는 모두 13개 종목, 23개 시·군 대항전으로 선수 및 보호자 등 5000여 명에도 내 18만 장애인을 대표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 대회다.

경북 영광학교는 이번 대회 탁구 두 종목에서도 9명의 학생이 참가해 여자 단식 종목에서 손미진(전공1) 은메달, 권진하(전공1)가 동메달을, 그리고 멀리뛰기 이준서(전공2), 400m 단체 릴레이에서 각각 은메달, 100m 김준우(고1)와 400m 원동빈(고3) 학생이 각각 동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강진순 교장은 "오늘 이 결과를 방과후 힘



든 훈련과정을 잘 참고 견뎌 온 친구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돌린다"면서 "도전하고 끈기있게 더 잘 해쳐 대신했다." 김효정 기자

이용사회 손광화 회장 취임

이용사회중앙회 영천시지부(회장 손광화)는 지난 25일 SD웨딩컨벤션에서 관내 이용업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석봉 회장의 이임과 손광화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신임 손광화 회장은 "앞으로도 이용협회 회원분들과 보다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영천시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이 한 단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으니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란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청 태권도단 강미르 선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확정

대표 선발전 여자 -49kg급 우승

영천시청 태권도단의 강미르 선수가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영천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 -49kg급을 우승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국가대표 출전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선발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1년 연기로 치러진 재선발전이다.

선발전은 남·녀 각 5체급으로 진행돼 △남자 +80kg급 김경덕, 이상준, 박상훈, 임홍섭 선수 △여자 -49kg급 강미르, 조혜진 선수 △여자 -53kg급 강보라 선수 △여자 -57kg급 안혜영 선수까지 영천시청 태권도단은 총 8명이 출전했다.

강미르 선수는 여자 -49kg급에 출전해 승자승으로 결승전에 선착해 대전체고 김윤서 선수와의 접전에서 태극마크를 얻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는 오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최고액만 갚으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채권액 모두를 갚아야 되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이는 변제자가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이나 아니면 물상보상인 또는 해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이냐에 따라 다르다. 위 질문의 경우에는 제3자의 물상보상인에 해당된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자신이 진 채무의 전액(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채무의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변제해야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물상보증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귀하께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에 해당되므로,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거나 그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섭 변호사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다면? 부동산 담보(근저당) 채권최고액 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나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배상한다.

문 친구가 돈을 빌릴 때 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친구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친구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금과 이자 채무액이 이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상태라 저는 부득이 저의 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한다.

저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만 갚으면 되는지, 아니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갚아야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답 근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이 다른 경우 과연 채권

[윤영민 회계문답]



윤 영 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구분을 지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시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매도인은 징수하고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포괄양수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만약 상가를 장부에 계상하던 중에 매각하게 된다면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 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장부상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다르다, 주택연면적이 더 크면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상가의 면적이 주택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부분은 비과세, 상가부분은 상가로 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부터는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이는 채무인수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상가 양도시 주의... 토지·건물 구분해 매매계약 작성

토지와 건물=부동산 성격다르다. 건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부과 상가,주택 겸용 건물=면적따라 달라

상가를 양도할 때는 토지와 건물분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체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된다, 오늘은 상가 양도시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상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 나누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토지와 건물은 성격이 다른 부동산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종철 칼럼



우 종 철

(본지 객원논설, 일요서울 논설주간)

가정의 달과 '조선의 큰 어머니' 장계향

지금은 인구절벽 시대에 코로나19로 어지러운데 '혼살(혼자 살기)'과 '비혼족'이 점점 늘고 있어 가히 풍진(風塵) 세상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사람 인(人)'이라 쓰고 있지 않은가.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의 시대'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불교 경전에 "믿음으로 가정이 화평하면 살아생전에 복과 좋은 일이 저절로 찾아온다. 복이란 자신의 행위에서 오는 결과일 뿐 결코 신(神)이 내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이다.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師任堂)'처럼 장계향(張桂香, 1598~1680)은 효의 실천과 10남매 자녀교육에 본모기를 보였고, 가정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남겨 '위대한 어머니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본관은 안동. 임진왜란 중인 1598년(선조 31) 안동에서 장흥효(張興孝)와 권사은 사이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유학자 이시명(李時明)의 부인이며, 이현일(李玄逸)의 어머니로 지와 덕을 겸비한 현모양처로도 이름이 높다.

부친인 경당(敬堂) 장흥효는 퇴계 이황의 심학(心學)적 도통(道統)의 합일점을 이룬 인물이다. 장계향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지경(持敬)과 수신(修身)을 배워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10세 전후에 지은 '학발시(鶴髮詩)'·'소소음(蕭蕭吟)'·'성인음(聖人吟)' 등은 시상이 탁월한 명시로 꼽힌다.

채제공은 "중국의 <시경> 삼백 편 중에도 여성 작품이 많지만 '학발시' 만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15세 이후에는 남존여비의 윤리체계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시문·서화가 부인의 길이 아니라 하여 그만두었다.

19세에 부친의 제자이면서 이미 1남 1녀를 둔 이시명과 결혼, 6남 2녀를 두었다. 슬하에 이휘일·이현일 등 대학자를 많이 길러내어 송나라 정호(程顥)·정이(程伊) 형제를 낳은 후부인(侯夫人)에게 비견되기도 한다.

장계향은 자녀들에게 늘 "너희들이 비록 글 잘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나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착한 행동 하나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아주 즐거워하여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또한 그녀는 "함께 사는 것이 우주의 질서다. 함께 사는 최고의 도덕률은 나누고 돌봐주는 것이다."라는 '나눔의 철학'을 가졌다. 그리하여 "다시 태어나도 재령 이씨 집안의 노비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비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도왔다. 이처럼 단아하고 엄하면서도 부덕(婦德)과 학식이 높으므로 세상에서 '여중군자(女中君子)'라고 불렸다.

장계향은 특히 초서에 뛰어났다. 오세창은 "장씨 부인은 그 읍조리는 시에 나타나고 붓끝으로 써내는 것은 풍아(風雅)의 체와 종요(鍾繇)와 위부인(衛夫人)의 법을 갖추고 있다."라고 상찬했다.

정조도 장계향의 서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올리라고 명해서 보고 감탄해 마지않았다. 장계향은 그림에도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나비를 잘 그렸고, 인두를 불에 달구어 그리는 낙화(烙畵)에도 능했다.

장계향은 9편의 시와 각종 음식의 조리법을 적은 한글 요리책 <음식지미방(飮食知味方)>을 편찬했는데, 이는 '맛의 철학'을 음식으로 풀어낸 문화유산으로 현존하는 동아시아 최고의 한글 요리서이다.

장계향은 셋째 아들 이현일이 이조판서에 오르자 정부인(貞夫人) 교지를 받았다. 차별 없는 평등과 인간애를 나누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조선의 큰어머니'. 장계향 선생을 경모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게재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Kelly

Denmark Premium



본 광고의 디자인은 영천신문의 디자인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영천신문은 100% 국내산 맥아를 사용하여 맥주를 제조합니다. 이 맥주는 덴마크의 프리미엄 맥아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습니다. 이 맥주는 덴마크의 프리미엄 맥아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습니다.

2023년 4월 라거의 반전 **켈리**

덴마크 프리미엄 맥아 100% - 더블 숙성 라거